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아카드 종교-제의 차용어

배철현*

1. 들어가는 글

구약성서는 셈족어군(Semitic language family)의 일원인 성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다. 셈족어 언어들 간의 유사성은, 로만스어군(Romance language family)의 언어들인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유사한 것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서 기자들이 어휘를 선택할 때,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들의 단어에는 없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성서에서 한두 번 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 즉 하팍스(hapax)인 경우는 고대근동의 다른 언어로부터 빌린 차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어의 의미를, 성서의 다른 판본,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기원후 2세기부터 쓰여진 바빌론과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아람어 번역본인 타르굼역, 5세기 이후 아람어 일종인 시리아로 번역된 페쉬타, 혹은 기원후 7세기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에서 유추할 수는 없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 본문에 대한 후대의 번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번역본들이 쓰여진 당시의, 성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서가 쓰여진 당시에 통용되던 그 단어의 의미를 추려내기는 어렵다.

(도표 1) 하팍스 히브리 단어의미 --> (칠십인역, 타르굼역, 페쉬타, 불가타) --> 한글 번역

구약성서 가운데 고대 근동에서 차용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서, 히브리 이전의 고대 근동 언어들, 예를 들어 수메르어, 아카드어, 에블라어, 히타이트어 등, 성서 히브리어가 등장하기 이전의 고대 근동 언어들에 도움

* 세종대학교 교수, 고대근동문헌학

을 받아 의미를 추적하면, (도표 1) 방식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도표 2) 고대 근동 언어들 ---> 히브리 단어

특히 셈족어 중 기원전 2600년부터 기록된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와 함께 인류 문명의 발상지언어로 성서 히브리어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멸망 시킨, 앗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언어이다. 아래 (도표3)처럼 성서 히브리어의 한 단어가 동시에 아카드어에서도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성서 히브리어 단어는 원-셈어(Proto-Semitic)를 그대로 유지한 단어일 수가 있다. 즉 아카드어와 히브리어는 모두 셈족어에 속하는 ‘자매언어들’(sister languages)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 속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대다수의 단어들을 ‘동족 단어’(cognate)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언어학적 유지’(linguistic reten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셈어에서 ‘집’은 *bayt-이다. 이 단어가 아카드어에서는 *bītum*, 히브리어에서는 *bēt(בֵּית)*로 나온다. 이 경우에 성서 히브리어 *bēt(בֵּית)*가 아카드어의 *bītum*과 유사하다 하여, 아카드 차용어라 볼 수 없다. 성서 히브리어 *bēt(בֵּית)*는 아카드어와 마찬가지로 원-셈어 단어 *bayt-를 언어학적으로 유지하여 히브리어 문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도표 3) 원-셈어 (*bayt-) -----> 아카드 단어 (*bīt-um*)
-----> 성서 히브리어 (*bēt(בֵּית)*)

(도표3)과는 달리, 성서 히브리어에 없었다가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에서 단어를 빌어 사용하는 경우, 그 단어를 차용어(loanword)라고 한다.

(도표 4) 원-셈어 단어 -----> 아카드어 단어 -----> 히브리어 차용어

(도표 5) 수메르어 단어 -----> 아카드어 차용어 -----> 히브리어 차용어

아카드어와 성서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유사 단어가 나왔을 경우, 그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차용한 성서 히브리어 단어인지(도표 4,5), 아니면 원-셈어에서 각기 유지한 단어(도표 3)인지 알기 위해서 ‘옥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이라는 원칙을 사용한다. 중세기 철학자 옥캄은 *entia non sunt multiplicanda praeter necessitatem*, ‘(논리의 주장에 있어서) 수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 단어가 ‘받는 언어’라고 가정하는 것이 ‘주는 언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그 설명이나 가정이 단순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논리 최소화 원칙’(Principle of Logical Parsimony)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종교-제의 언어에만 국한시키겠

다. 아카드어에서 성서 히브리어로 된 과정을 되도록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2. 용어들

2.1. ‘문화단어들’(Kulturwörter)

‘문화단어’(Kulturwört)란 두 언어 군 이상에 속하며 상이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이동성’을 가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흔히 ‘어원 고아’(etymological orphan)라고 불린다.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이며 체념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고전문헌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언어들 어원을 깊이 다룰 때, ‘문화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추적해야만 할 때가 있다.

‘문화단어’라고 알려진 어휘들은 거의 명사들이다. 이들은 대개 구체적인 물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식물, 채소, 금속, 야생동물의 명칭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 군인들이나 상인들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에, 같은 언어 안에서 여러 가지 철자로 나타난다. ‘문화단어’는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단어이다. 그러므로 ‘문화단어’는 의미는 확실하지만 어원이 확실하지 않은 단어들이다.

2.2. ‘차용어’(Lehnwörter)와 ‘외래어’(Fremdwörter)

흔히들 ‘차용어’는 ‘받는 언어’(received language)의 문법에 완전히 동화되어 ‘주는 언어’(giving language)의 문법의 자취가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이고, ‘외래어’는 외국 물건을 지칭하고 ‘주는 언어’의 문법을 유지한 단어들을 의미한다.

미국 영어에서 *honcho*와 *Hauptsturmführer*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인들의 입에, 미국인들의 입에 회자되던 단어들이다. 그러나 *Hauptsturmführer*는 독일의 비밀경찰을 이르는 ‘외래어’이며, *honcho*는 원래 중국어 한자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하여 읽은 ‘분대장’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그 의미가 확산되어 ‘대장’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차용어’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연구하려는 히브리 단어가 ‘외래어’인지, 아니면 ‘차용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아카드어 *tartannu*에서 빌린

성서 히브리어 חֲרָתָּי 성서에서는 '(앗시리아) 군인 대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열왕기하 18:17과 이사야 20:1에서 두 번만 언급되지만, 이 단어가 미국 영어의 honcho와 같이 이스라엘인들이 חֲרָתָּי를 '군대 대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외래어'와 '차용어'를 편의상 모두 '차용어'라고 부르겠다.

3. 성서 차용어 연구

성서 히브리어 나타난 차용어 연구는 비교셈족학자들의 첩예의 연구 대상이었다. T. 램딘과 M. 바그너는 각각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이집트 차용어와 아람어 차용어에 대해 연구하였다.¹⁾ 아카드 차용어에 대한 연구로는 80년 전 H. 쾰머른이 저술한 *Akkadische Fremdwörter als Beweis für babylonischen Kultureinfluss*가 있다.²⁾ 그러나 이 작품은 당시 독일에서 풍미했던 '범-바빌로니아주의' (Pan-Babylonism)의 일환으로, 모든 성서 히브리 단어를 아카드에서 찾으려는 왜곡된 방법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많은 오류를 남겼다.

1962년, M. 엘렌보겐이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아람어에 나타난 차용어를 추적하였다.³⁾ 그러나 이 책은 성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 연대적으로 늦은 언어인 미쉬나 히브리어, 타르굼 아람어, 칠십인역, 불가타역, 페슈타역에서 그 어원의 의미를 추려내려 했고, 반면에 수페르어나 아카드어와는 거의 비교하지 않았다.

4. 종교-제의 아카드 차용어

아카드어 차용어는 성서 히브리어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차용어를 의미상으로 구분하자면, 법률-행정, 전문, 제의-종교, 군사, 상업, 농업, 지리, 천문

1) Thomas O. Lambdin, "Egyptian Loan Words in the Old Testament," JAOS 73 (1953), p. 145-55; Max Wagner, *Die lexikalischen und grammatikalischen Aramaismen im alttestamentischen Hebräisch* (=BZAW 96. Berlin: Töpelmann, 1966).

2) Heinrich Zimmern, *Akkadische Fremdwörter als Beweis für babylonischen Kultureinfluss*, 2nd. Leipzig: Hinrichs, 1917).

3) Maximilian Ellenbogen, *Foreign Words in the Old Testament: Their Origin and Etymology* (London: Luzac, 1962).

용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차용어들도 있다. 이들 중 법률-행정, 전문, 그리고 제의-종교 아카드 차용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성서 히브리어는 왕과 왕실에 관련된 용어와 종교에 관한 용어를 주로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서 시대는 거의 신 앗시리아 시기와 신 바빌로니아 시기와 일치하며, 특히 남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실과 신전에 관한 많은 용어들을 차용했음이 분명하다. 아래는 성서에 나타난 아카드 제의-종교 차용어를 소개한 것이다.

4.1. אֱלִילִים ‘죽은 자들의 영

이 단어는 이사야 19:3에서 한번 언급되는 하팍스 레고메나(hapax legomena)로, 수메르어 GIDIM/KITEM의 차용어인 아카드어 *eṭemmu/eṭimmu*가 다시 히브리어로 차용되었다. 흔히 ‘마술사’라 번역되어 왔다. 성서에서 언급되는 다른 ‘하팍스 레고메나’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이사야 19장 3절 후반절 안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감지 할 수 있다. 다음은 히브리 본문과 <표준새번역>, <NRSV>이다.⁴⁾

וְדָרְשׁוּ אֱלֹהֵי־אֱלִילִים וְאֱלֹהֵי־הַאֲשִׁיִּים וְאֱלֹהֵי־הַבְּבוֹת וְאֱלֹהֵי־הַדְּעִיּוֹת׃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they will consult the idols and the spirits of the dead and the ghosts and the familiar spirits.

여기에서 언급된 마술과 관계된 단어들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표준새번역>과 <NRSV>를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번역의 차이가 있다. 이 번역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새번역>	<NRSV>
우상	: the idols
마술사	: the spirits of the dead
신접한 자	: the ghosts
무당	: the familiar spirits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마술이 소개되었다. 먼저 ‘문다; 상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דָּרַשׁ와 אֱלִילִים가 소개되었다. אֱלִילִים은 ‘혼’, ‘우상’, 혹은 ‘우

4)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상에 잇든 신'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מַעֲשֵׂי־אֱלֹהִים는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동사 ^C-d-y에서 파생된 명사로, '영매', 곧 '신접한 자'나 '무당', 혹은 '마술사'를 의미한다.⁵⁾ מַעֲשֵׂי־אֱלֹהִים는 '영매'로 번역되기도 하고 '무당이 불러내는 귀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칠십인역은 מַעֲשֵׂי־אֱלֹהִים을 영매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ἀγάλματα '형상들'로 번역하였다. BDB는 이 단어를 מַעֲשֵׂי의 복수형이라고 해석하였고, מַעֲשֵׂי를 이 단어의 어원으로 보아 'mutterers' 즉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다. 성서 히브리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랍어 단어인 ḥṭṭa '낙타처럼 울다'와 연관시켜서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유추한 것 같다.⁶⁾

A. 지르쿠와⁷⁾ F. 펠레는⁸⁾ 이 단어를 아카드어 eṭimmu '죽은 자의 영'과 연결시켰다. eṭimmu는 아카드 문헌에서 종종 마법에 관련된 단어로 등장하며, 점치는 데 있어서 점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점을 치는 영적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이사야서 19장 3절의 용례와 유사하다. 아카드 문헌에서 ilāni ukabbūt eṭimmi aplah는 '나는 신들을 존경하고 에뎀무들을 섬긴다'라는 문장과 같이, eṭimmi는 점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제의나 예배의 대상으로 ilāni '신들'과 대비하여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מַעֲשֵׂי־אֱלֹהִים을 아카드어 eṭimmu와 동일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히브리어 מַעֲשֵׂי־אֱלֹהִים는 복수형으로, 마지막 자음 '멤'은 남성 복수형 어미이다. 그러나 아카드의 eṭimmu에서 m은 어미가 아니라 어근이다. 둘째, 히브리어 מַעֲשֵׂי־אֱלֹהִים의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 차용어인 경우 대개 아랍어를 통해 빌려왔으나, 정작 아랍어에서는 이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מַעֲשֵׂי־אֱלֹהִים가 아카드 eṭimmu와 의미상, 단어 형태상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다. 히브리어 מַעֲשֵׂי־אֱלֹהִים는 아카드어 eṭimmu를 잘못 분석하여 m을 복수 어미라 추측하였고 두 번째 자음 t가 중복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이사야 19장 3절 후반절 번역을 다음과

5) 아카드어 사제 문서에서도,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mādu는 사제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 의례를 거쳐 의례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이며, 반면에 lā mādu 즉 'mādu가 아닌'은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6) F. Brown, S. Diver, C.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07), p. 31.

7) Anton Jirku, *Dämonen und ihre Abwehr im Alten Testament* (Leipzig: Deichert, 1912): 11쪽 이하.

8) Felix Perles, "Etimmu im Alten Testament und im Talmud," *Orientalistische Literaturzeitung* 17(1914), pp. 108-110.

9) S. Kaufman, *The Akkadian Influence on Aramaic. Assyriological Studies* 1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 50.

같이 제안한다.

וְהָרְשָׁו אֱלֹהֵי־אֱלִילִים וְאֱלֹהֵי־אֲשִׁים וְאֱלֹהֵי־אֲבוֹת וְאֱלֹהֵי־דַעְנוּמִים:

그들은 우상들과 죽은 자의 영들과 무당들과 마법사들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4.2. פָּשַׁח ‘주술로 치료하다’¹⁰⁾ אִשָּׁח ‘주술가’

직업 명사 אִשָּׁח ‘주술가’는 다니엘서의 히브리어로 쓰인 부분(1:20; 2:2)과 아람어로 쓰인 부분(2:20, 27; 4:4; 5:7, 11, 15)에서만 언급된다. ‘주술로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פָּשַׁח는 열왕기하 5장에서만 언급된다. פָּשַׁח는 아카드어 *āšipu* ‘마술사; 치유자’에서 차용한 단어이다.¹¹⁾ 이 단어가 히브리어 속한 서셈어(West Semitic)에서 유래한 단어일 수는 없다. 만일 이 단어가 원-서셈어(Proto-West Semitic) **wšp*에서 유래했다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yšp*가 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카드어 (*w*)*āšipu*는 현재분사 남성 단수형이다. 이 단어 형태인 *pāris*는 흔히 히브리어에서 *qattal* 형태로 나와서 직업 또는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¹²⁾

M. 엘렌보겐은 아카드어의 한 방언인 앗시리아어 *uššupu*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치료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פָּשַׁח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주장한다.¹³⁾ 특히 신 앗시리아 방언의 /s/은 성서 히브리어에서 /s/가 되기 때문에 פָּשַׁח는 예상된 히브리어 철자이다. 다만 이 단어의 기본의미는 동음이의어인 פָּשַׁח의 ‘모으다’나 ‘제거하다’가 아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NRSV>와 <표준새번역>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נִי הַנְּבִיא אִשָּׁח בְּשָׁמְרוֹן אִן יֵאָכֵף אֹתוֹ מִצָּרַעְתּוֹ:

She said to her mistress, “If only my lord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 이 단어는 열왕기하 5장 3절, 6절, 7절, 11절에서 언급된다.

11) H. Zimmern, *Akkadische Fremdwörter als Beweis für babylonischen Kultureinfluss*. 2nd ed. (Leipzig: J. C. Hinrichs, 1917), p. 67.

12) Harold Chaim Cohen, *Biblical Hapax Legomena in the Light of Akkadian and Ugaritic* (Missoula, Montana: Scholars Press, 1978): # 61 hg-kg.

13) M. Ellenbogen, *Foreign Words in the Old Testament: Their Origin and Etymology* (London: Luzac, 1962), p. 43.

만일 어근이 *'-s-p인 성서 히브리어 단어 קָטַח 가 '제거하다'라는 의미라면, 목적어는 '문둥병'처럼 '병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קָטַח 동사의 목적어는 '문둥병'이 아니라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다. 이 단어가 언급되는 5장에서, קָטַח 동사의 목적어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인 '그를'(אוֹתוֹ)이다.(3, 6, 7절) 5장 11절에 서만 קָטַח 동사의 목적어가 הַמְּצוּרִים 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후반절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그는(엘리사) 그를(나아만) 그의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할 것이다.

그러므로 קָטַח 의 의미는 아카드어 *usšupu*처럼 '정화하다' 혹은 '치료하다'이다.

E. 릿터는 메소포타미아의 정화나 치료에 관련된 두 직업인 '정화 사제' *āšīpu*와 *asû* '의사'를 구분하고 열왕기하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āšīpu*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¹⁴⁾ 특히 *āšīpu*는 치료를 하기 전에 처방전을 미리 알리기 때문이다. 이 처방전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0절이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4.3. הִכַּל '신전'

성서 히브리어 중 성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הִכַּל 이다. 이 단어는 수메르에서 차용한 초기 아카드어(기원전 2600-2000년)의 단어가 북서 셈어(Northwest Semitic)로 유입된 단어이다.

(도표 6) 수메르어 É.GAL > 고대 아카드어(기원전 2600-2000년) > 초기 북서 셈어 > 히브리어 הִכַּל

수메르어에서 신전을 의미하는 단어는 É.GAL인데, 이 단어의 축자적인 의미는 '큰 집'이다. 이 단어를 차용한 아카드어는 *ekallu*이다.

14) Edith K. Ritter, "Magical-Expert (=āšīpu) and Physician (=asû): Notes on Two Complementary Professions in Babylonian Medicine," in *Studies in Honor of Benno Landsberger on his 75th Birthday*, Hans G. Günterbock and Thorkild Jacobsen, eds. (Assyriological Studies 1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5), pp. 299-321 and Hector Abalos, *Illness and Health Car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Role of the Temple in Greece, Mesopotamia and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 45 (Atlanta: Scholars Press, 1995), p. 154.

그러나 북서 셈어의 모든 단어들은 후음 *h*로 시작하고 있다.¹⁵⁾ 수메르어 음가에서 É는 일반적인 /e/음가와와는 다르다. 분명 É는 E와 발음이 수메르인들에게 다르게 발음되었기 때문에, É와 E는 전혀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다. 이 원래의 수메르 발음을 오히려 후대의 언어들의 발음을 통해 재구성할 수도 있다.

고대 아카드어 (기원전 2600-2000) 이후의 아카드어에서는 단어 처음에 오는 후음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포함한 북서 셈어의 *h*-는 설명이 필요하다. *h*-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직도 우리는 수메르어 É는 고대 아카드어의 음가 /ʾà/와 일치하며, 그것은 다시 셈어 **ha* 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차용한 아카드어 *ekallum*의 /e/가 후음 + /a/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성서 히브리어 단어 *hkl/hykl*은 초기 아카드어 음가를 흉내낸 초기 북서 셈의 발음을 그대로 간직한 단어이다.

(도표 7) 수메르어 É.GAL/ĕ.gal?/ > 고대 아카드어 **akkal-um* > 북서 셈어 **hekal* > 히브리어 הֵיכָל

4.4. *כֹּרֶךְ ‘제사 케익’

예레미야서 7:18과 44:19에서 언급되는 כֹּרֶךְ는 두 군데 모두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동의어인 아카드어 *kamānu*는(일반적인) ‘과자’이다. *kamānu*는 아마도 동사 *kamū* ‘굽다; 튀기다’에서 파생했을 것이다. 이 단어는 특히 제사의식에 쓰이는 뜨거운 접시에 올려진 빵이나 케익을 의미한다.¹⁶⁾

예레미야 7:18은 아카드어 *kamānu*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הַבָּנִים מִלְקָטִים עֵצִים וְהָאֲבוֹת מִבְּעָרִים אֶת־הָאֵשׁ וְהַנְּשִׂאִים לְשׁוֹחַ בֶּצֶק
לַעֲשׂוֹת כֹּרֶךְ לְמַלְכַת הַשָּׁמַיִם וְהַסֹּדֵד נֹסְכִים לְאֱלֹהִים אֲחֵרִים לְמַעַן הַכְּעִסְנִי:

The children gather wood, the fathers kindle fire, and the women knead dough, to make cakes for the queen of heaven; and they pour out drink offerings to other gods, to provoke me to anger.

자식들은 땀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

15) 우가리트어 *hkl*; 제국 아랍어, 팔미리 아랍어, 하트라 아랍어, *hykl*; 성서 아랍어 הֵיכָלֹא.

16) *kamānu*는 목동들이 모닥불에 남겨진 잿더미 위에서 준비한, 즉 ‘잿더미(위)의 케익’ (*kamān tumri*)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이 구절은 바빌로니아-앗시리아의 여신 이쉬타르(Ishtar)를 위한 제사상을 묘사하고 있다. 신주를 뿌리고, 별 모양이나 달 모양, 혹은 여신 형상을 밀가루로 반죽하여 구워 바친다. 땀감을 줍고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만드는 특별한 모양을 가진 케익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카드어에서 *kamānu*의 의미와 유사하다.

아카드어 방언 중 신 바빌로니아어(기원전 1000-500년)와 후기 바빌로니아어(기원전 500년 이후)에서 모음 사이의 *-m-*은 [w] 음가를 가지기 때문에 히브리어 כוּנִים의 두 번째 자음 ‘바브’는 바빌로니아어 발음을 차용한 것이다.

4.5. כִּשְׁפָּא ‘무당’/ כַּשְׁפִּים ‘마술’/ כִּשְׁף ‘마술을 부리다’

이 단어는 직업명사형으로 ‘무당’(예레미야 29:9), 일반 명사로 ‘마술’(미가 5:1; 나훔 3:4a, b; 이사야 47:9, 12; 열왕기하 9:22), 그리고 동사로 ‘주술을 부리다’(역대하 33:6; 신명기 18:10; 말라기 3:5; 출애굽기 7:11; 다니엘 2:2; 출애굽기 22:17)로 언급된다.

아카드어에서도 히브리어와 유사하게 동사 *kašāpu*는 ‘마술을 부리다’라는 의미, *kaššāptu* ‘마술 부리는 여자’ *kaššāp*는 ‘마술’ 그리고 *kišpu*도 ‘마술’이란 의미이다.¹⁷⁾ 성서 히브리어에서 ‘마술’(미가 5:1; 나훔 3:4a, b; 이사야 47:9, 12; 열왕기 하 9:22)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כַּשְׁפִּים이다. 이 단어는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수형으로 나오는 소위 ‘플루랄레 탄툼(plurale tantum)’이다. 아카드어에서도 이 단어는 항상 플루랄레 탄툼형인 *kišpu*로 나온다. 성서 히브리어 כַּשְׁפִּים의 형태는 소위 세골명사의 복수형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כַּשְׁפִּים의 형태는 아카드어 *kišpu*를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아카드어의 남성 복수형 어미 *-ū*를 제외한 어근 **kišp-*를 차용하여, 세골명사의 복수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도표 8) 아카드어 *kišpū* - - -> (**kišp-* - -> *kaššāpūm* כַּשְׁפִּים
plurale tantum

이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차용되었다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이에 해당하는 동사가 ‘피엘’형 כִּשְׁף라는 점이다. 이 피엘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 직업명사(nomen agentis)인 כִּשְׁף에서 만들어진 동사형이다. 히브리어 כִּשְׁף의 명사 형태 *qattāl*형은 아카드어 *kaššāp*의 단어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17) 우가리트어 *kšpm* ‘마술사들’; 시리아어 *kušpā* ‘기도’, *etkaššap* ‘기도하다’.

4.6. לחן ‘신전 관리인’

이 단어는 신 앓시리아어(기원전 1000-500)에서 유래하여, 아람어를 거쳐 성서의 לחן이 되었다. 아카드어에서는 ‘관리’라는 의미를 가진 *alahhīnu*, *lahhīnu*, *alḥēnu*, 성서아람어에는 여성형 어미가 접미하여 *lḥnh*, ‘여자 관리’로 언급된다.

B. 란스버거는 ‘신전 관리자’를 의미하는 성서 아람어 לחנה는 아카드어 *lahhīnu*, 혹은 *alahhīnu*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¹⁸⁾ 신 앓시리아 시대의 신전 관리자는 주로 제기, 의복, 그리고 의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당하는 ‘사찰’이었다. 아람어로 쓰여진 엘레판틴 파피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발견된다.

לחנ יי יהה

YHH의 *lḥn*¹⁹⁾

스가랴 6:14에 대한 <NRSV>와 <표준새번역>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והקשרת תהיה לחלם ולטוביה ולידעיה ולחן בן צפניה לזכרון בהיכל יהוה:

And the crown shall be in the care of Heldai, Tobijah, Jedaiah, and Josiah^(주) son of Zephaniah, as a memorial in the temple of the Lord.

(주) Syr Compare verse 10: Heb *Hen*.

그 왕관은,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의 성전에 둘 것이다.

<NRSV>는 성서 원문과는 다르게 לחן을 생략하고 *Joshiah*로 대체하였다. 각주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헨’이라고 기재하였다. <NRSV>는 ḥ을 전치사로 보았고, חן을 인명으로 해석하였다.

<표준새번역>도 <NRSV>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ḥ을 전치사로 보았고, חן을 인명으로 해석하였고 본문에는 없는 ‘곧 요시야’를 첨가하였다. 이 요시

18) Benno Landsberger, "Akkadisch-hebräische Wortgleichungen," SVT 16 (1967), pp. 198-204; Stanislav Segert, "Aramäische Studien I," ArOr 24(1956), p. 388, 400; AIA, 66. von Soden은 아카드어 *lahhīnu* 'ein Angestellter in Tempeln' (AHw, 528)과 *alahhīnu*, "Müller"(AHw, 31)를 별도로 취급했지만 CAD는 두 단어를 모두 *alahhīnu* '행정 관리'(CAD A/1, 294-96) 아래 두었다.

19) 이 구절은 Bezael Porten과 Ada Yardeni의 *Textbook of Aramaic Document from Ancient Egypt 2: Contracts* (Jerusalem:Hebrew University, 1989), p. 60.

야는 스가라 6장 11절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로 소개되어 있는데, 6장 14 절에서는 ‘요시야’가 생략되었고 그 대신에 $\eta\eta\ell$ 을 첨가하였다. 칠십인역은 $\eta\eta\ell$ 을 전치사 + 명사로 보아, εἰς χάριτα 즉, ‘친절로’라고 번역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로, $\eta\eta\ell$ 은 신 앗시리아어 문헌의 *lahhina*나 엘레판틴 아람어 *lhēn*처럼 왕족 관직명이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 의복 관리자였다. 아마도 중복자음생략(haplography)으로 $\eta\eta\ell\eta$ 에서 두 번째 η 가 생략되어 $\eta\eta\ell$ 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원-마소레트 문헌에는 ‘요시야’의 이름이 있었으나, 필사자에 의해 생략되었다. 스가라 6장 14절의 원-마소레트 문헌을 재구성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ta\eta\ell\eta$ $\eta\eta\ell\eta$ $\eta\eta\ell\eta$ $\eta\eta\ell\eta$

여호수아, 성전 관리, 스바니야의 아들

그러므로 본문비평상의 실수는 중복자음생략이 아니라 *un saut de même à même*, 즉 필사자의 눈이 첫 번째 라메드 글자에서 두 번째 라메드 글자로 건너 뛰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생략한 것이다.²⁰⁾ 이 두 번째 제안이 10절에서 이미 소개한 요시야의 이름을 생략하고 그의 관직명만 사용하는 파격적인 서술 방식을 택한 첫 번째 제안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특히 $\eta\eta\ell$ 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왕관을 보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14절 전반에 나오는 ‘왕관’이란 단어와도 의미상 짝을 이루는 단어이다.

성서 히브리어 $\eta\eta\ell$ *lahēn*은 원-히브리어(Proto-Semitic) **qtil*형에서 유래했다. 성서 아람어에서 남성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형 $\eta\eta\ell\eta$ 는 남성형이 **lhēn*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중기 앗시리아(기원전 1500-1000년) 문헌에서 *alhēnu*가 나온다. 히브리어 $\eta\eta\ell$ *lahēn*은 앗시리아어 *alhēnu*에서 처음 a를 생략하고 마지막 단모음을 생략하여 히브리어, 아람어 형태 *lahēn*에 도달했었을 수도 있다.

(도표 9) 앗시리아어 *alhēnu* > (첫 자음 생략)* *lhēnu* > (마지막 모음 생략) *lhēn*

그러나 히브리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신 앗시리아(기원전 1000-500년) 시대의 단어 *lahhīnu*로부터도 히브리어와 아람어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이

20) 이와 같은 서술방식 ‘이름+직업+ *ben-* +이름’은 흔한 용법이다 (사무엘상 30:7; 열왕기하 19:2).

단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lahḫinu*에서 중복 후음을 단순화한 후, 강세가 없는 열린 단모음을 생략하여 히브리, 아람어 *lāḫēn*에 도달했었을 수도 있다.

(도표 10) *lahḫinu* > **lahḫn* (중복후음 단순화) > **lḫin* (엑센트 이동에 의한 열린 짧은 모음 생략) > *lāḫēn*.

아마도, 신-앗시리아 시대의 아카드어가 성서 히브리어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도표 2)가 성서 히브리형 לָחַן *lāḫēn*을 위하여 가능성이 더 있는 형태이다.

4.7. *מחוזת '여선지자'

이 단어는 하팍스로 잠언 31:3에서 연계형으로만 언급된다.

잠언 31.1-9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충고를 나열하고 있다. 잠언 31:3에 대한 <NRSV>와 <표준 새번역>은 다음과 같다.

אַל־תַּתֵּן לְנָשִׁים חֵיץ וְדַרְכֶיךָ לְמַחֲזוֹת מְלָכִין׃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en, your ways to those who destroy kings.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이 문장의 해석은 *nimm*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널리 인정된 분석은 *nimm*가 *nimm* 동사의 여성 복수 분사형으로 *nimm* *מְלָכִין* '왕들을 파괴하는 여자들'이란 의미로 보는 것이다. <NRSV>나 <표준새번역> 모두 '파괴'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E. 리핀스키는 성서 히브리어의 *nimm*는 아카드어 *mahḫūtū*에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¹⁾

아카드어 *mahḫūtū*는 '여선지자'라는 의미로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마리에서 발견된 문서에서는 *mahḫūtū*가 임금의 관심을 끌었다고 증언한다. 1969년 W. 모란은 14개의 마리 문서를 연구하면서 당시 임금의 관심은 자기의 신변 보호, 반란의 위협, *mahḫūtū*,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승리였다.²²⁾

21) Edourd Lipinski, "Empunts suméro-accadiens en hébreu biblique," *Zeitschrift für Althebraistik* 1/1(1988), p. 66.

22) William L. Moran, "New Evidence from Mari on the History of Prophecy," *Biblica* 50 (1969): 17. 마리 문서의 예언 형태에 대한 최근 작품은 Jean-Marie Durand, *Archives épistolaires de Mari I.1: les textes prophétiques*

그러므로 잠언 31:3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도표 11)

אַל־תַּחַן לְנַשִּׁים חֵילָךְ וְדַרְבָּיִךְ לְמַחֹת מְלָכִין:

동사+ 간접목적어1(전치사 ל + 사람) + 직접목적어1 + 직접목적어2 + 간접목적어

이 구조로 다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너는 여자에게 너의 힘을, 왕들의 여선지자에게 너의 길을²³⁾ 쓰지 말아라.

4.8. 70 ‘예배소’

시편 42편 5절에 언급되는 70은 그 의미가 불확실한 단어로 언급되어 있다. <표준새번역>과 <NRS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כִּי אֶעֱבֹר בְּסֶךְ

These things I remember, as I pour out my soul:

how I went with the throng, and led them in procession to the house of God, with glad shouts and songs of thanksgiving, a multitude keeping festival.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범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표준새번역>의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문장 전체를 생략, 문장을 첨가와 의역임에 틀림없다. 특히 כִּי אֶעֱבֹר בְּסֶךְ 부분을 ‘I went with the throng’ 혹은 ‘무리의 (앞장을 서서)’라고 번역하여, 70을 ‘무리’라고 이해하였다. 고대 번역 본들도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70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와 연계하여 번역하고 있다. BHS 본문비평장치에 אֶרֶךְ אֶרֶךְ 즉 ‘위대한 이의 천막에서’라고 번역하여, 70을 ‘초막집’이란 의미를 가진 7000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εν τῷ σκηνῆς θαυμαστῆ, 페쉬타는 *bstrk* ‘syn’ ‘당신의 힘의 보호 안에서’로 번역하였다.

‘금기’라는 의미를 가진 수메르어 ZUG을 차용한 아카드어 *sukku*는 ‘예배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카드어 단모음 *u*가 폐음절에 올 경우 히브리어에서는 단모음 *a*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편 45편 5절을 다시 번

(=ARM 26, 1.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8), pp. 377-443.

23) 여기서 ‘길’이란 성적인 의미의 ‘정력’과 같은 것이다.

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예배소에서 지나 하나님의 집까지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으로 무리들이 (종교) 절기를 즐기던 일!

4.9. פור '주사위'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부림절의 기원과 관련하여 에스더서에서만 언급된다.²⁴⁾ 이 단어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J. Lewy는 아카드어 *pūru*가 아카드 동사 *parā'u* '자르다의 명사형이라고 주장한다.²⁵⁾ 그러나 세 번째 자음이 후음인 경우 명사형이 *pūru*처럼 *qūl* 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단어 아카드어 *pūru*는 수메르어 BUR '그릇'에서 차용했다.

4.10. שגל '왕후'

느헤미야 2:6와 시편 45:9에서 언급되는 שגל은 흔히 '왕후'라고 번역된다. 최근에 출판된 HALOT는 שגל을 아카드어 *ša ekalli* 즉 '궁중의 사람'에서 유추한다.²⁶⁾ '왕궁의 사람'은 흔히 남자 관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인 '왕후'와는 다르다.

S. 파르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하였다.²⁷⁾ '여자'에 대한 신 앗시리아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인 *sinništu*가 아니라 *issu* (복수, *is(s)āte*)라고 주장한다. *issu*에 대한 연계형은 *issi*이며 '궁궐의 여자'(MÍ.É.GAL)은 *issi ekalli*가 된다. 파르폴라는 신 앗시리아 단어 *issi ahāiš*에서 두 단어 사이의 모음충돌현상으로 앞에 나온 단어의 마지막 단모음이 생략된 후 두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 *issahāiš*가 됨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 대비를 상정했다.

(도표 12)

24) פור (에스더 3:7; 9:24, 26), פורים (에스더 9:26, 28, 29), פרים (에스더 9:31, 32).

25) AIA 48 n. 271. Julius Lewy, "Old Assyrian puru'um and pūrum," RHA 5(1938), p. 123 이하.

26)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V*. 1415.

27) Simo Parpola, "The Neo-Assyrian Word for 'Queen'," *State Archives of Assyria Bulletin* 2/2 (1988): 73-76.

*issi aḥāiṣ : issāḥāiṣ = *issi ekalli : X =*issekalli.*

**issekalli*는 첫 모음이 생략되고 두 개의 중복 자음(ss)을 단자음화 한다. 예를 들어 신 앓시리아어 *issu annaka* ‘여기에서’, *issu amnaka* ‘거기로부터’ 그리고 *issu pāni* ‘앞에서’는 각각 *sunakka*, *summaka*, *supaniya*가 되었다. 유사하게 **issekalli*는 **sekalli*가 되었어야 한다. 신 앓시리아어 방언에서 모음 사이에 *k*가 흔히 *g*로 유성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šegalli*]로 발음되었고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לַשָּׁדַי로 나왔다.

4.11. *שָׁדַי ‘귀신’

שָׁדַי이란 단어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두 번 신명기 32:17과 시편 106편 37에 언급된다. <표준 새번역>은 이 두 곳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신명기 32:17

וַיִּזְבְּחוּ לְשָׂדִים לֹא אֱלֹהִים לֹא יְדָעוּם חֲדָשִׁים מִקֶּדֶב בָּאוּ לֹא שָׁעָרוּם אֲבֹתֵיהֶם: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시편 106편 37절

וַיִּזְבְּחוּ אֲתֵיבָנֵיהֶם וְאֲתֵיבְנוֹתֵיהֶם לְשָׂדִים:

또한 악귀들에게 자기의 아들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히브리어 שָׁדַי이 아카드어 *šedu*에서 차용한 단어의 복수라는 것은 이미 제안되었다. 아카드어 *šedu*는 신이 아니다. CAD는 이 단어를 ‘인간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영혼이나 귀신’이라고 정의한다.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šedu*는 제사장, 의례를 동반하는 신이 아니다. 이러한 아카드 용법은 분명 ‘제사의 대상’으로 신명기 32:17과 시편 106편 37절에서 언급되는 שָׁדַי와 다르다. 신명기 3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야 한다.

וַיִּזְבְּחוּ לְשָׂדִים לֹא אֱלֹהִים לֹא יְדָעוּם

그들은 ‘엘로하’가 아닌 귀신들, 즉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